

光日春秋

전성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 자식이다.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에 다녔고 어떤 사람은 학벌이 형편없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카리스마가 강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수줍은 성격이다. 이렇게 보면 성공으로 향한 공통점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크게 성공하는 사람에게서 적어도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그 하나는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택한 것이다. 적성은 곧 재능을 말한다. 직업이 자기 재능과 맞으면 같은 노력으로도 훨씬 더 성공한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 사람의 생각이 정리돼 있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가치관'과 '꿈'이다. 가치관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며 그 것이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결정한다. 예

서로 모순되는 가치관이 공존하면서 종종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한마디로 가치관이 정리돼 있지 않으면 혼란스럽고 마음이 편치 않다. 집중하기도 매진하기도 어렵고 자연히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성공이 어려운 것이다. 기업이란 '법이 만든 사람(법인·法人)'이다.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의 모든 것이 사실 법인에도 적용된다. 경영학자들의 조사 결과, 기업에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각'이란 것이 있다. 기업은 사람의 집합으로 이뤄지는 것이니 사실 그 사람의 생각의 대부분은 액자에 걸려 있는 '근사한 말'일 뿐 공감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실제 직원들은 모두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다. 즉, 그들이 개인적으로 갖는 가치관과 꿈은 너무나 다를 수 있고 회사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모순되기도 한다. 이것은 사람으로 치면 마음속에 각기 다르고 때로는 모순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혼란스럽게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이 한 가지 길에 매진하기는 매우 어렵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3가지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본다. 이때 공통된 답이 많이 나오면 그 회사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건강한 상태에 있다고 진단된다. 상황이 나쁜 회사일수록 나오는 답들이 가지각색이다. 한 위를 바르게 성공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생각을 바르게 정리해줘야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

기업과 종업원의 동상이몽

념이 없다. 그러나 목표에 매진할 수 있다. 자연히 능률이 오르고 성공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지를 모르고 그냥 산다. 무의식 속에 묻혀 있는 가치관이 명하는 대로 살긴 하지만 그것을 의식 차원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가치관들이 정리돼 있지 않고 혼란 상태에 있다.

총합이 당연히 그 기업의 생각이 된다. 문제는 기업이 스스로 자신들의 '생각'이라고 여기는 것과 실제 임직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생각이란 보통 비전, 가치, 신조, 사훈 등의 다양한 말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통 근사한 액자에 실려 눈에 띄게 벽에 걸려있다. 문제는 기업이 표방하는 이 '생각'들이 얼마나 직원들에게 공감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로 칼럼

김재봉



요즘에는 안과를 찾아오는 환자의 상당수가 어린이들이다. 단순히 시력검사를 하기 위해 부모 손에 이끌려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눈을 잘 못 맞추거나 한쪽 눈을 감고 다른 눈으로만 사물을 보고도 한다든지 고개를 유독 비틀어 보는 습관 때문에 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흔히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 할 정도로 우리 몸에서 소중한 부분인데 현대인의 생활환경 특히 요즘처럼 부모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어린이들은 쉽게 컴퓨터나 TV등에 노출되기가 쉽다.

위서 책을 본다거나 장시간 어두운 조명이나 스탠드 아래서 책을 보지 못하게 하며, 조명은 자연채광에 근접한 조명을 유지해주고 스탠드보다는 방안의 전체 조명을 유지하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해줘야 한다. TV는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적어도 3m이상 떨어져 바른 자세로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가 좋고, 컴퓨터를 할 때도 눈 높이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 물론 TV나 컴퓨터는 장시간 들여다 보게 되면 눈의 피로와 두통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근시와 안구건조증을 유

어린이 시력관리 이렇게

이 때문에 소아안과학회에서는 만4세 이전 반드시 안과 검진을 받으라고 권장하지만 취학 전 시력검사를 처음 해보고 통지서 등을 받고 놀라서 어린이와 황급히 안과를 찾아오는 부모들도 많다. 대부분 선생이는 출생 직후 0.1 미만의 시력을 가지며 생후 3개월 정도 되면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는데 이때 선생이가 눈을 잘 맞추지 못하면 안과적인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며 검진 시기를 놓쳐 조기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특히 선생이 및 아기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기의 눈에 이상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린이의 경우 한쪽 눈을 감거나 눈의 위치가 이상해보이며, 빛을 잘 보지 못하고 눈부서 하거나 물결, 책, TV등을 너무 가까이 본다면 안과에서 반드시 정밀 검진을 받아보아야 한다. 생활 속에서 바른 습관을 갖춰 아이의 눈이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가 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누

발시킬 수 있으며 한 번 나빠진 눈은 다시 좋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대부분 안과에 와서 부모님들이 눈에 좋은 영양제를 권유받고자 하는데 어렵게도 부모님이 원하는 답을 내주기가 상당히 어렵다. 근본적으로 눈을 좋게 하는 약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눈에 이로운 음식과 해로운 음식을 구분할 수 있다. 해로운 음식에는 술과 담배, 커피, 설탕, 정제된 밀가루, 탄산음료 등 미세칼이나 비타민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물 등이다. 눈에 이로운 음식은 비타민과 단백질 등이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에 걸리기 쉽고, 노안은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나타난다. 비타민 A는 간이나 달걀, 살구, 토마토, 고구마, 해바라기, 해산물, 시금치 등 푸른 잎에 많이 있고 비타민 C는 감귤, 딸기, 양배추, 피망, 양파 등에 많이 함유돼 있으며 칼륨이나 칼슘 그리고 등푸른 생선도 눈에 좋은 영양소다. (밝은광주안과 원장)

자꾸 벗겨지는 프라이팬 코팅, 가족 건강 걱정돼

우수한 프라이팬의 기본 조건은 팬을 덮고 있는 코팅이 생명이며 요즘 나오는 우수 제품이라는 것의 코팅은 보통 양면 4중 코팅을 자랑하던 마블 코팅 프라이팬이다. 하지만, 후라이팬을 직접 쓰는 주부로서 솔직히 약간 불안스럽다. 그 이유는 짧게는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코팅이 벗겨지고 음식이 코팅에 묻어나오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도 새로 산 프라이팬에 코팅이 금세 벗겨졌길래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니 전체 만개 중에 불량이 하나정도 나올 수 있겠다는 변명을 했다. 그래서 결국 교환을 했는데도 이게 같은 증상의 불량이 나타났다. ▲배나현·광주시 북구 정동동

최근에 한 고발 프로를 봤더니 이 프라이팬 코팅은 마블 코팅이라는 불소수지로 하는데 이 불소수지 코팅에는 PFOA라는 발암 물질로 의심되고 있는 촉매제가 쓰인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 환경단체와 환경청에서는 각 악으로 이 코팅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모든 채 이 코팅재료로 만든 프라이팬을 쓰고 있으니 이게 인체에 얼마나 해가 되고 있는지 불안하기만 하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다. ▲권운영·광주시 서구 치평동

대형마트 손님 싸움이...영세상인들 '속수무책'

몇 년째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대형 마트들이 사람들을 싸움에 몰아넣는 작은 동네 슈퍼들은 죄다 죽고 말 것이다. 그나마 야채류나 과일 같은 걸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대형 할인점들이 저가 공세로 손님들을 빼가면 정말 대책이 없다. 우선 가격부터 경쟁이 안 된다. 농촌의 농민들은 도시의 대형 할인마트들과 거래를 하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형 마트와 거래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그런 약점을 이용해 대형마트들은 농산물 물건을 아주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다 팔기 때

문에 우리처럼 도매시장에서 가져다 파는 것보다 훨씬 싸게 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이다. 할인은 기본이고,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받으라는 1+1 행사도 이어지고 있다. 솔직히 소비자들로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우리처럼 손님을 끌고 영세 상인들이 물건을 팔 수 있는 상장이 사라지는 것이다. 동네의 작은 상자가 살아야 서민들이 살고 경제가 살 수 있다. 동네 작은 상권의 기본이자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업종이 슈퍼인데 무슨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이다. ▲권운영·광주시 서구 치평동

시설

4대강 살리기조차 '호남 흉대' 인가

이명박 정부의 호남 흉대가 갈수록 태산이다. F1(포플러 원·국제 자동차 경주대회)지원법 제정, 서남해안 관광 레저도시개발(J프로젝트), 2012 여수 엑스포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 여기에 4대강 살리기 사업까지 이름을 올리게 됐다. 6월 영산강 뱃길복원을 주장하는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협의회'에 따르면 한강, 낙동강, 금강 등 3대강 살리기에 비해 영산강의 사업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퇴적토 준설 규모를 낙동강의 20분의 1로 대폭 축소할 것이다. 퇴적토 준설량의 경우 낙동강은 4억2천만㎡인데 비해 영산강은 2천만㎡에 그쳐 준설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영산강 예상 수심은 2.5m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부 발표처럼 영산강~다도해 간 크루즈선이 운항할 수 있으려면 수심이 5m는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영산강 뱃길복원은 불가능하다는 예기

다. 게다가 홍수방지와 수질개선, 생활용수 확보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당초 전남도 계획에서는 영산강 하구둑 통상갑문의 너비를 6m에서 30m로 확대하기로 돼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변에 발표된 정부계획에서는 통상 갑문 확대사업이 빠졌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물 부족과 수질개선, 경제살리기 등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대운하의 사전포석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전남 주민들은 영산강 뱃길복원과 수질 개선에 대한 기대로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협의회의 주장대로 영산강의 퇴적토 준설량이 낙동강에 비해 축소됐다면 명백한 지역차별이자 기만행위다. 정부는 4대강 중 영산강이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 당초 계획대로 영산강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지역 기초단체 90%가 감사 부서 없다니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 10곳 중 9곳이 감사 부서가 없다고 한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5개 구 가운데 감사 전담부서를 둔 곳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역시 22개 시·군 중 19개 시·군은 감사 부서가 설치되지 않았다. 지역 기초단체 90%가 감사기구를 두지 않은 것이다. 이는 감사 전담부서가 없는 전국 기초단체 평균 비율 78%와 비교해도 훨씬 높다. 그동안 유독 지역 기초단체 공직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최근 광주·전남 기초단체 공무원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해남 공무원의 복지금 횡령사건을 비롯해 곳곳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국민 혈세를 착복한 사건이 적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나 인사 비리로 쇠고랑을 찬 기초단체장 및 공무원이 비리비해 지역민들의 돈을 사고 있다. 오죽했으면 기초단체 선거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을까.

기초단체에 감사 부서나 기구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관리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내부 조직의 부실한 감사 기능이 지방 공무원의 비리를 키워 온 것이다. 자체 비리를 감시할 기구가 없는데 어떻게 북부기구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는가. 한 공무원이 수년 동안 수억 원의 복지기금을 횡령해도 적발되지 않은 것은 바로 자체 감사기구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물론 감사만으로 모든 공직비리를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할 수는 있다는 점에서 기초단체의 감사 시스템 구축은 시급한 현안인 아닐 수 없다. 전신성 캠페인이나 교육만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공직비리 근절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근원적으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이유다.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감사 부서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기초단체의 효과적 감사체제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도요타 자동차 본사가 있는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豊田) 시의 본래 이름은 '고로모(高母)'였다. 뽕나무가 무성하던 시골마을의 운명이 바뀐 것은 1938년 도요타가 자동차 공장을 세우면서부터다. 마을 사람들은 밭벗고 나서 공장 설비를 돌고, 59년엔 아예 도요타시로 지명을 바꿨다. 이후 시민들의 도요타에 대한 지원은 수실적이 전년의 4%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각종 재정 사업이 중단되곤 했다. 하루 1천명이 넘는 실직자가 직업을 잃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자동차 도시' 광주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을 사면 보조금을 줄 정도로 헌신적인 지원이 이어졌다. 도요타 자동차는 이에 화답하듯 미국 GM을 물리치고 세계 1위 자동차 메이커가 됐다. 도요타시도 일본 제1의 부자 도시로 떠올랐다. 인구는 50년전의 40배 42만3천명으로 늘었는데, 실업률은 1% 미만에 그쳐 부러움을 샀다. 기업성

장이 도시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도시의 성장이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전형적인 성장 연합의 모델이다. 오래 가지는 않았다. 도요타는 지난해 35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59년만의 첫 적자다. 대규모 해고, 조업 시간 단축 등 생존 게임이 시작됐다. 도요타시도 타격이 크다. 법인세 징수율이 전년의 4%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각종 재정 사업이 중단되곤 했다. 하루 1천명이 넘는 실직자가 직업을 잃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자동차 도시' 광주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을 사면 보조금을 줄 정도로 헌신적인 지원이 이어졌다. 도요타 자동차는 이에 화답하듯 미국 GM을 물리치고 세계 1위 자동차 메이커가 됐다. 도요타시도 일본 제1의 부자 도시로 떠올랐다. 인구는 50년전의 40배 42만3천명으로 늘었는데, 실업률은 1% 미만에 그쳐 부러움을 샀다. 기업성

도요타 시



수실적이 전년의 4%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각종 재정 사업이 중단되곤 했다. 하루 1천명이 넘는 실직자가 직업을 잃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자동차 도시' 광주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을 사면 보조금을 줄 정도로 헌신적인 지원이 이어졌다. 도요타 자동차는 이에 화답하듯 미국 GM을 물리치고 세계 1위 자동차 메이커가 됐다. 도요타시도 일본 제1의 부자 도시로 떠올랐다. 인구는 50년전의 40배 42만3천명으로 늘었는데, 실업률은 1% 미만에 그쳐 부러움을 샀다. 기업성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address.